

2023 으뜸인재 길라잡이 인터뷰 모음집(E-Book)



2023 으뜸인재 길라잡이 인터뷰 모음집(E-Book)

CONTENTS



미 유타대 석사 입학 서지우	4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 박통일	6
美 워싱턴대 석박사 입학 정지훈	8
미국 유학 앞둔 김규리	10
독일서 박사 과정 이루리	12
한예중 1학년 박소현	14
국립전통예술고 1년 나예진	16
한국디지털미디어고 1년 최진호	18
동신대 한의학과 2년 노가은	20
순천여고 1학년 조한이	22
장흥중 2학년 채응혁	24
뉴젠리더십학교 1학년 윤동규	26
해남중 3학년 이담	28
한국에너지공대 대학원 정진주	30
영암 삼호중 3년 김재석	32
순천 용당초 5학년 최훈서	34
여수여고 2학년 박예은	36
여수중앙여고 '위대한 과학'팀	38
목포해양대 권혜지·천미소·조울	40
영광중 마민재	42

2023 전남 으뜸인재
미 유타대 석사 입학 서지우씨

포기하지 않은 삶 뿌듯... 세계적 지리학자 될 것

광양 출신 5살부터 조부모와 생활...
경희대 4년 전액 장학생
GIS 분야 공간빅데이터 융·복합...
4차 기술혁명 연계 연구
2023년 06월 23일(금)

“힘들었지만, 그것을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곧 출국하면 또 다른 세상과 마주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제가 고등학생때부터 꿈꿔왔던 세계적인 지리학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2023년 4기 전남도 도비 해외유학생으로 선정된 서지우(여·23)씨는 미국 유타대학교 지리학 석사과정 입학 을 위해 오는 7월 7일 비행기에 오른다. 광양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나온 뒤 경희대 지리학과 4년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 올해 2월 졸업했다. 지금까지 14명의 해외유학생 가운데 최연소다.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보면 세상이 달라보인다는 사실을 지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그 때부터 어디를 가나 흙의 색깔과 지형을 살피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 지역지리 동아리를 만들어 답사하고 보고서나 논문을 작성하는 등 지리학자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쉽없이 달렸다. 그 결과 2019년 6개 대학 지리학과에 지원,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과대학에 지리학과가 있는 경희대를 선택, 4년 전액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됐다.

“사실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주위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겁니다. 자아가 정립된 순간부터 가난해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서씨는 5살의 나이에 폐지 수집과 소작으로 생계를 잇던 할아버지·할머니에게 맡겨졌다. 곧 할아버지는 암으로 세상을 등졌고 할머니 밑에서 동생 지민(23)씨와 성장했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정부, 전남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유·무형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힐 정도로 난관을 극복해온 것을 긍지로 여기고 있다.

“유학생으로 선정된 뒤 유명한 논문을 읽고 주제를 찾으면서 아르바이트도 하

고 있습니다. 출국 전까지 한국연구개발원 데이터분석 작업을 도울 예정이고요. 유타대를 선택한 것은 담당 교수님께서 저의 사정을 알고 다양한 일을 주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대학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쉽없이 계속했다. 1주일에 100시간을 일한 적도 있다. 서빙, 축제 지원, 패밀리 레스토랑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해본 뒤 3학년이 되면서 학교 도서관에서 일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여건이 좋지 못한 것을 탓할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낸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미국이 본고장인 GIS(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분야에 있어서 공간과 빅데이터의 융·복합, 제4차 기술혁명 등과 연계한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대학교 4학년부턴 서씨의 일상은 언제나 똑같다. 오전 9시 일어나 김밥 두 줄을 포장해 연구실에 들어간 뒤 밤 10시에 퇴근한다. 명석함과 함께 성실함으로 자신의 길을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개척한 것이다.

“할머니(정영자·85)와 돌아가신 할아버지(고 서갑석·2016년 작고), 동생, 그리고 지역사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2017년 전남도 모범학생으로 선정돼 미국, 멕시코 등을 탐방했고, 6년이 지나 전남도의 지원으로 미국으로 유학길에 오릅니다. 저도 꼭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언제 귀국할 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좀 더 목표에 근접해 있었으면 합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
박통일씨

농사에 적합한 소프트 로봇 만들고 싶어요

2023 으뜸인재 <2>

외부 충격에 강하고 자체 변형 가능한

구동기 개발

대전 카이스트 석사...

9월 하버드대 박사과정 지원

2023년 06월 21일(수)

“연구를 할 때면 가슴이 벅차옵니다.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연구와 실험이 주는 그 짜릿
함이 있어요. 지금도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재미가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연구와 실험의 길
을 고집하며 노력해온 박통일(34)씨가
2023년 제4기 전남도 도비 유학생에 선
정됐다.

그는 2015년 2월 전남대학교 기계공학
과를 졸업한 뒤 대전 카이스트에서 1년
여간 연구를 도왔다. 이후 석사과정에
입학해 2018년 학위를 받은 뒤 한국과
학기술연구원에서 1년 동안 인턴 연구
원으로 지냈다.

아버지의 대장암 선고로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야 해 대학원을 포기하고 취
업하려고도 했고,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에는 결혼과 함께 광주에 자리한 한국
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소프트 로
보틱스’입니다. 실리콘 같은 유연한 재
료로 만들어진 로봇으로, 세밀한 작업
을 할 수 있죠. 특히 인구 감소, 고령 인
구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
사일에 적합한 로봇을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박씨는 석사 과정 중 외부 충격에 강하
고 자체 변형이 가능한 유연한 구동기
를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대학 3학년
때부터 약 10년간 왕성한 호기심을 갖
고 연구에 임하면서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논문 4편을 내놓을 정도로
연구자로서 능력도 인정받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연구원 시절
에는 기존 기기의 단점을 보완한 전기
유압식 그리퍼(gripper·잡는 기계 또는
도구)를 개발하는 등 로봇의 매커니즘
을 꾸준히 분석해오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으로 직
장을 옮긴 후 보다 정밀하게 강한 물체
를 조작할 수 있는 유연한 그리퍼를 개
발하고 그 성능을 증명해내기도 했습니

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독립
된 연구자로 서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
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연구자라면 문
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며, 논리적인 해
결책을 제시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연구자로서 더 높은 수준의 연구
와 실험을 주도하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마음 속에 담고
있었던 박씨에게 도비 유학생 선정 공
고는 한 줄기 빛이었다.

부인 송하나(37)씨와 두 자녀의 응원을
받으며 면접에 나가 당당히 뽐냈다.

“전남에서 농부인 아버지의 농사를 도
우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
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상상력과 호
기심을 길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구조와 기계에 관심을 가졌고 전공도
그 연장선상일 겁니다. 전남이 저를 있
게 했고, 성장시켰으며, 새로운 문을 열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는 오는 9월 미국 하버드대 기계공학
박사과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결과는
내년 4월이나 나오는데, 그동안 연구 실
적을 감안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
로 보고 있다.

하버드대를 선택한 이유는 소프트 로봇
분야에서 개별 전공없이 상호 융합 연
구를 진행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
기 때문이다. 관련 교수들도 출중하다
고 판단했다.

“박사학위를 받으면 바로 귀국해서 연
구자로서 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어머니(이삼순·63),
독박육아에도 열심히 뒷바라지 해준 아
내, 조금하지 말라고 조언해주신 박규
해 전남대 기계공학과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3 전남 으뜸인재 (3)
美 워싱턴대 석박사 입학 정지훈

바이오테크 신약 개발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GIST 생명과학부 석사...
국가 우수장학생·교내 우수장학생 등 선정
2018년 캘리포니아 공대생 생물물리학 공부,
생명체 변화 연구 관심
2023년 06월 25일(일)

“미국에서 단백질 설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쳐져 있는 바이오테크 신약 개발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오는 9월 15일 미국 워싱턴대학교 생물물리학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을 위해 출국하는 정지훈(26)씨.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학사·석사를 마치고 박사 진학을 고민하던 그는 2023년 제4기 도비 유학생에 선정되면서 꿈에 그리던 외국 유학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다.

목포 영화중·영흥고 출신인 그는 광주과학기술대학교(GIST·이하 지스트) 생명과학부에 입학해 과학도의 삶을 살고 있다. “연구중심학교이기도 하고, 목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1·2학년 때 과학만이 아니라 역사·사회·경제 등 다양한 과목을 가르쳐 융합형 인재 미래를 지향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반고 출신인 정씨는 과학고 출신인 동기, 선배들에 비해 수학, 물리 등의 과목에서 조금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2학년 1학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교내 우수장학생, 국가우수장학생 등으로 선정되며 분위기를 바꿨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형 이렇게 3명이 목포에서 살았습니다. 이후 제가 지스트에 입학하고 형(정광훈·31)이 여수에 직장을 구해 나가자 목포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던 아버지(정종대·62)가 명예퇴직하시고 여수로 이사를 가셨어요. 두 아들 키우시느라 애쓰신 아버지께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없이 고등학생 때 늦은 사춘기를 맞아 잠시 위기도 있었다. 자아·정체성에 대한 혼란, 욕심대로 성취하지 못하는 성적 등에 방황했었다. 하지만 결국 공부에 그를 붙잡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자유롭게 읽는 것이었어요. 책을 통해서 세계의 석학들이 세상의 어떤 점들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분석했는지, 또 학자들이 세상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는 2018년 1월 캘리포니아 공대 톱 필리스 교수와 함께 생물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생명 현상을 숫자로 이해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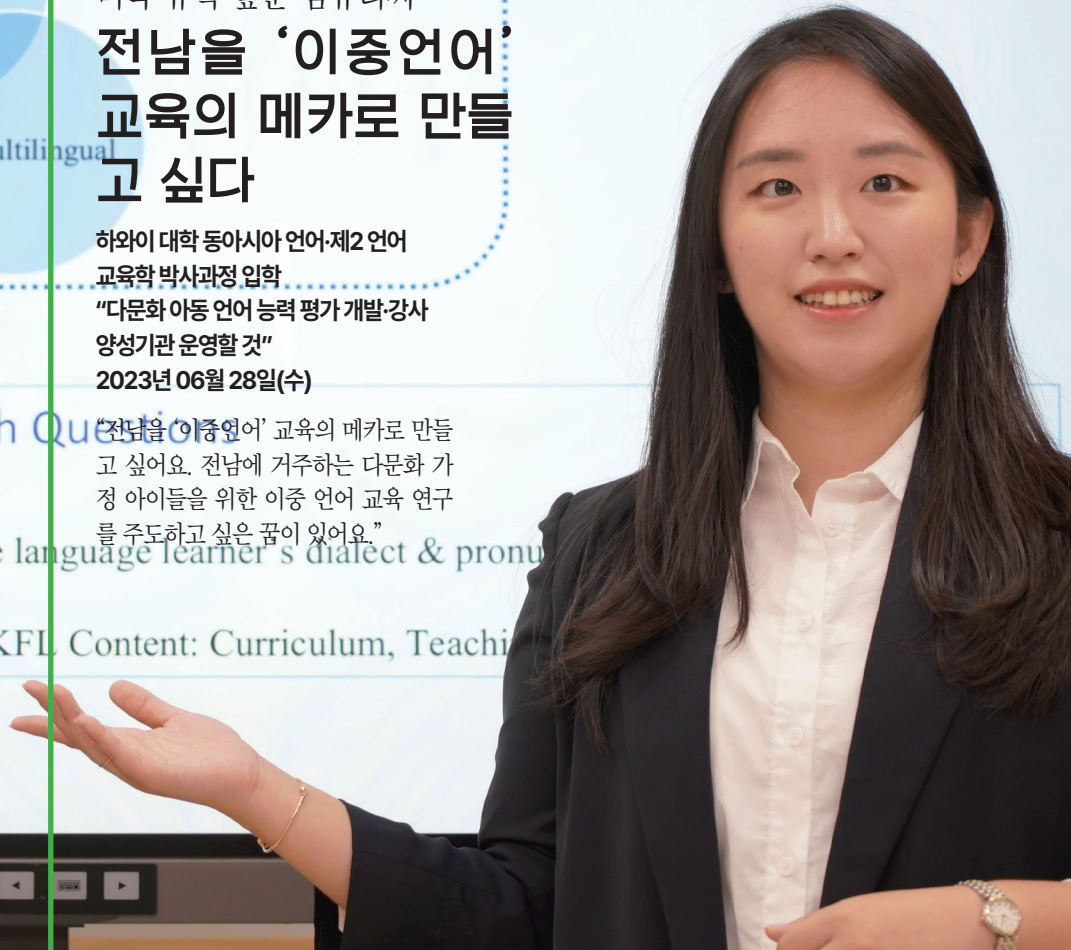
생명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에 강렬한 전율을 느꼈다. 통계와 컴퓨터 연산으로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생명정보학’과 유전 정보 서열을 읽어내는 시퀀싱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보다 더 가능해졌다는 것이 서씨의 생각이다. “노벨상 수상자나 세계적인 석학들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연구주제를 탐색합니다. 저도 그 반열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어요. 앞으로 암 치료제 개발을 위해 생명 빅데이터에서 암이 어떻게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암의 특이적인 대사 조절을 가지게 되는지를 관찰할 생각입니다. 이미 유전자 시계열과 대사 모델을 이용한 신약 표적 단백질 발굴 방법을 특허로 등재하고 생화학분자생물학회의 초록에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미 SCI 논문 1편, 특허 2건의 실적을 가진 그는 미국 워싱턴대 단백질디자인연구소에서 근무할 계획이다. 앞으로 길게는 10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이어가 연구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을 때 귀국 후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싶다. “여기까지 오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스트 언어교육센터의 엘리스 리, 레베카 베 선생님 등이 영어만이 아니라 미국 문화에 대해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학부 인턴과 석사과정 동안 부모님의 마음으로 저의 성장을 위해 힘써 주신 이선재 지도 교수님, 진로와 인생계획을 조언해주신 박찬희 연구교수님, 신약 표적 단백질 발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 기회를 주신 다룬 윌리엄스 교수님, 수학 교과목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해주신 김재길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3 으뜸인재 <4>
미국 유학 앞둔 김규리씨

전남을 ‘이중언어’ 교육의 메카로 만들고 싶다

하와이 대학 동아시아 언어-제2언어
교육학 박사과정 입학
“다문화 아동 언어 능력 평가 개발-강사
양성기관 운영할 것”
2023년 06월 28일(수)

“전남을 이중언어 교육의 메카로 만들고 싶어요. 전남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이중 언어 교육 연구를 주도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올해 전남 으뜸인재로 선정된 김규리(26)씨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관심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찾아내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다 대학 전공으로 선택하는가 하면, 해외 유학을 가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 연구가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정도다. 목포해인여고 재학 중 다문화 가정 학

생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를 하다가 아이들이 겪는 언어 문제를 접한 게 시작이었다고 한다. “국내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16만명이에요.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다문화 가정 아동은 늘고 있죠. 그런데, 다문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할 때 국어 교육이랑 차이를 두지 않거든요. 이중언어를 쓰는 것을 고려해서 평가하고

교육해야 하는데 한국인들한테 한국어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김씨 말대로 전남도교육청이 파악한 지난해 지역 학생 중 다문화 학생 수는 1만1367명으로 5.29%를 차지한다.

교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갖고 있었는데, 교육 봉사 과정에서 ‘이중언어 환경(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써야 하는 환경)에 놓인 다문화 학생이 1만명이 넘는 전남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 뭘까’라는 고민은 김씨의 진로에 영향을 미쳤다. “전남 지역 학생 중 다문화 학생 수가 전체의 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고 이들이 우리랑 함께 살아가야할텐데, 그렇다면 그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고민해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은 김씨가 경희대 한국어학과에서 이중언어교육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됐고 석사 과정을 거쳐 결국 이중언어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국 유학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 그는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관심 분야와 관련있는 프로그램을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경험을 쌓았다.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된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가 하면, 석사 과정을 다니면서 전남 지역 내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프로그램에 참여, 원어민 교사와 함께 6개월 간 무안지역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프랑스 라로셀 대학이 주관하는 한국어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 프랑스·한국 이중국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고급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오는 8월 7일 출국, 하와이 대학

교에서 ‘동아시아 언어 문학 박사과정’과 ‘제2 언어 교육학 박사과정’을 동시에 밟을 계획이다. 하와이의 경우 대한민국 이민자 1세대가 자리 잡은 곳으로 한국어 이민자 언어 교육 및 언어 정책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국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이중언어 습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미국의 ‘다문화 사회에 따른 외국어 교육 정책론’을 연구할 계획이다. 한국어에 최적화된 외국어 교수법 개발 및 관련 교육 과정을 구축해 나가는 연구도 진행해볼 생각이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에 기여하는 교육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중언어 아동을 위한 언어 능력 평가를 개발하고 싶어요.”

김씨는 다음달 박사 과정을 시작하지만 5년 뒤 박사 학위 이후 활동 계획도 꼼꼼히 세워놓았다.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같은 다국적 학습자들을 위한 언어 평가 모델이 부족한 현실인 만큼 이들을 위한 언어 능력 평가 개발 계획과 국내 다문화 가정 아동이 이중언어 화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강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중언어 습득 연구소 설립 구상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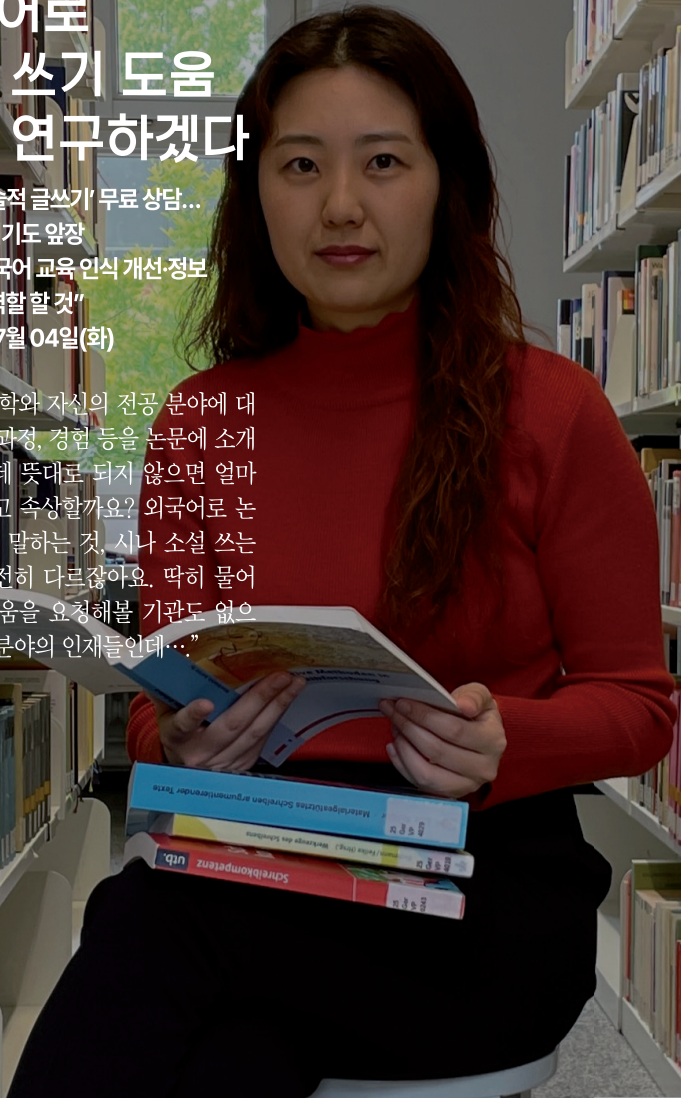
“전남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연구를 주도하고 싶어요. 전남 지역 사회 인적 자원으로 이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중언어교육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3 으뜸인재 <5>
독일서 박사 과정 이루리씨
**외국어로
논문 쓰기 도움
주는 연구하겠다**

유학생 '학술적 글쓰기' 무료 상담...
소녀상 지키기도 앞장
"고국서 외국어 교육 인식 개선 정보
격차 해소 역할 할 것"
2023년 07월 04일(화)

"힘들게 유학과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성과와 과정, 경험 등을 논문에 소개하고 싶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할까요? 외국어로 논문 쓰는 게 말하는 것, 시나 소설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딱히 물어볼데도, 도움을 요청해볼 기관도 없으니까요. 각 분야의 인재들인데..."



올해 전남 으뜸인재로 선정돼 독일에서 박사 과정을 준비중인 이루리(34)씨가 유학생들이 호소하는 학술적 글쓰기의

어려움을 전공 분야 박사 논문 주제로 삼은 이유다. 정확한 박사논문 주제는 '외국어 글쓰

기 교수학습 분야를 학술적 글의 상호 텍스트성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논문을 쓸 때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워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지 파악하고, 교수법적으로 제안하는 연구다. 오는 2025년까지 2년 5개월 정도 예비실현, 본실험 등 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한다.

"독일 대학에서는 학위 논문 말고도 매 수업 때마다 소논문 형태로 과제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소논문이나 학위 논문의 벽에 가로막혀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씨는 독일 학술교류처 장학생으로 독일 예나대에서 독일어 교육 과정을 마치고 독일 카셀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며 대학 부설어학원 독일어 초급반 강사를 맡아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또 독일의 한국 유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무료 온라인상담과 독일어 학습방법을 상담하면서 유학생들도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이러한 경험과 활동 과정에서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자신의 전공을 활용,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한국외대에서 독일어학을 전공하면서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교육을 공부했었다.

석사논문도 이같은 문제 인식에서 출발, '독일어 수업 내 문화적 차이에서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숙련된 교사들의 대처능력 연구'를 주제로 했었다. "(유학생들은) 자신의 글이 왜 낮은 점

수를 받았는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소논문, 학위 논문을 쓸 수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거나 물어볼 데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박사 과정으로 '외국어 및 제 2 언어로서의 독일어 교육' 학과를 선택해 유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필요한 학술적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씨의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 활동은 한국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전공 선택, 심층적 연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한국에서는 연탄나르기 봉사, 독거노인 말동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독일 유학 중에는 카셀 이주 난민들의 정착을 돕는 단체의 언어문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숙자들과 약물 중독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돌보는 단체에서 무료 배식 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

독일의 한국 유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상담을 꾸준히 진행하는가 하면, 카셀대에 설치됐다가 강제 철거된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학생 모임 대표도 맡고 있다.

목포에서 태어나 문태중, 전남외고를 거쳐 한국외대 독일어과를 졸업한 뒤 독일 유학을 밟고 있는 이씨는 박사 과정을 마친 뒤에는 전남에서 외국어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보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제가 배우고 익힌 전공과 지식을 활용해 지역사회 인재들이 자신들의 재능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서울과 달리 영어 외에 외국어를 배우기가 힘든 지역적 여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3 으뜸인재(6)
한예중 1학년 박소현씨

목소리로 감동 주는 세계적 성악가 되겠다

고2 때 으뜸인재 선정 뒤 다시 뽑혀
“국제 무대 준비에 큰 힘”
호남예술제 최고상...
초등생 때부터 재능기부
“후배 도울 것”
2023년 07월 11일(화)

“따뜻하고 넓은 그릇같은 선배 음악가,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
히 배우고 연습할 겁니다.”



전남도가 올해 선정한 80명의 으뜸인재 중 클래식 분야 예체능 리더로 선정된 박소현(19·한국예술종합학교 1학년)씨는 다부지게 말했다. 박 씨는 고교 2학년 때 으뜸인재로 처음 선정된 뒤 대학생 때 다시 뽑힌 케이스다. 그만큼 음악적 능력은 검증됐다는 얘기다. 목포에서 태어난 박 씨는 세계적 소프라노로 활동하는 꿈을 찾아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젊은 예능 인재다. 접하기 힘든 클래식 무대와 인연을 맺은 건 성악가인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아버지를 따라 무대 위 클래식 연주자들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클래식 성악가의 꿈을 키웠다는 것이다.

“사람 목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느꼈는데, 제 목소리로 청중들과 마음을 열어놓고 감동을 공유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박 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자신의 꿈을 그리는 데 부지런했다. 동요로 연습을 시작했고 수많은 전국대회 입상으로 이어졌다.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꿈을 그리다’는 주제로 동요 독창회도 열었다.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기회도 가졌고 재능 기부로 행사장 무대에 오르는 일도 생겼다. 특히 재능기부 공연은 좋아하는 성악을 청중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초등학생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참여한 재능기부 공연만 스무 번이 넘는다고 했다.

정명여중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발성 테크닉을 익히기 시작했고 광양의 한국창의예술고로 진학했다.

한국창의예술고는 전남 첫 공립 예술고로, 순수·실용예술의 경계를 허물어 미디어(Midi) 음악, 작곡, 콘텐츠창작, 디자인, 미디어 아트 등 융합 전공 교육으로 예술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고교에서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다보니 호남예술제(제 67회) 고등부 성악 부문 최고상을 받는 등 여러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진학하게 됐다.

한예중은 예술적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 훈련시키는 예술 영재 교육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남도 으뜸인재로 선정되면서 지원받은 재능지원비가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수업 말고도 훨씬 많은 연습과 레슨을 거치며 준비하고 경험을 쌓아야 국제 콩쿠르 등 무대에 오르는 실력을 갖추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으뜸인재로 선정되면서 그런 준비를 하는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한예중에 들어갔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가량의 수업 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원을 했어요. 저같은 학생들에겐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박 씨는 한예중 입학 뒤 하루 3시간 이상 연습실을 찾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9월까지 여름 방학에 들어갔지만 목포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머무르면서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국제적 콩쿠르 등에 나서기 앞서 전문 연주자로서 자신만의 색깔로 해석하려면 남들보다 더 오페라나 가곡 악보를 자주 들여다보고 연습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발성이 받쳐 주지 않으면 누구도 제 노래를 들으려 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서 개인 연습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어요. 1~3학년 때는 많은 곳을 연습하고 마스터해가며 소리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예요. 음악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개성과 창의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페라나 여러 가곡을 누구보다 더 많이 연습하고 마스터하는 데도 집중하고요.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콩쿠르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박 씨는 전남 출신 성악가로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 으뜸인재로 선정된 게 한예중 합격에 큰 힘이 됐는데, 저도 후배들에게 비슷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 으뜸인재 출신 세계적 소프라노로 우뚝 서야 그런 기회가 올테니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3 으뜸인재 <7>
국립전통예술고 1년
나예진 양

가야금 선율로 위안과 희망 전하고 싶어

중 2때 시작...강진 특성화중 다니며
가야금 접해
“국악으로 K-POP·대중음악 연주...
매력 알릴 것”
2023년 07월 18일(화)

“가야금은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악기에요. 소통하기에 좋은 악기죠.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고 위안과 희망을 전해줄 수도 있어요. 저의 음악으로 행복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남도의 예체능 분야 으뜸인재로 선발된 나예진(16·국립전통예술고 1년) 양이 음악을 하는 이유다. 나양이 가야금 연주자를 결심한 건 중

학교 2학년 때다. 강진에 있는 특성화중을 다니면서 처음 접한 가야금 소리를 듣고 좋아서 정했다고 한다. 문화·예술 교육 과정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위주의 대안교육 특성화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에서 접한 가야금 소리가 너무 좋았다는 것.

“가야금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데, 줄을 통기다 원하는 선율이 흘러나올 때 느끼는 행복감과 성취감이 커요. 그렇게 연주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저도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죠.”

나양은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받은 큰 도움을 잊지 못한다.

“진로를 결정했으니 가야금을 구입하고 레슨 받고 연습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배울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어요.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가진 꿈에 한 발씩 다가가려면 도움이 될 것을 찾아야 했구요. 그런데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가야금을 본격적으로 배워볼 생각에 국립전통예술고로 진로를 결정한 뒤 입시 준비 과정에서 나양을 눈여겨본 악기사 사장님은 선뜻 1500만원짜리 가야금 2대를 지원해줬다고 한다. 국립전통예술고는 60여 년 전 국악인들이 직접 만든 국악예술학교가 전신으로, 전통예술을 중심으로 한국음악·무용·음악연극과 전공에서 문화예술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다.

다양한 경험을 여러 곳에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광주·전남이 아닌 서울로 진학을 결정했다는 게 나양 설명이다. 강진의 특성화중을 다닐 때도 그랬다. 나주에서 태어났는데 강진으로 학교를 다니겠다고 한 것도 조금 다른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보라”며 용기를 줬다고 한다.

전남 으뜸인재 선정도 꿈을 향한 발걸

음을 내딛는 데 힘이 됐다. 국립전통예술고에 다니며 레슨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으뜸인재 장학금으로 부족한 연주 실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개량 가야금을 구입해 연습할 기회도 가져볼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지난해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예능 영재 키움 사업에 참여했고 전남청소년음악회 무대에 오르기도 했어요. 여러 경연에도 나서봤어요. 배운 게 많았죠. 박자 타는 것도, 무대 경험도 부족했거든요. 연주법, 연주 스타일 등을 보고 들으면서 조금씩 익혀나갔습니다. 이제 더 많은 걸 배워가겠습니다.”

나양은 으뜸인재로 선정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도움을 꼭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 으뜸인재로 선정된 뒤 제가 받은 기쁨과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산조 고향인 전남을 알리고 국악으로 K-POP, 대중음악을 연주하면서 국악의 매력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지역을 알릴 가야금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알릴 곡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나양이 방학에도 바쁜 이유다. 나양은 자신이 배운 연주와 경험을 지역민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제가 힘들 때, 제가 지칠 때 받은 도움과 음악의 고마움을 지역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물론, 전남 발전에 보태고 싶다는 마음도 큼니다. 제가 예능 영재 키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꼭 영재 키움 사업 강사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3 으뜸인재 <8>
한국디지털미디어고 1년
최진호군

농촌 일손 돕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싶어요

중1때 코딩 접하며 IT 관심...
정보올림피아드 수상
“기계공학·수학 등 전문지식 갖춘
IT·AI 개발자 될 것”
2023년 07월 23일(일)

“개발자가 꿈이에요. IT 개발자,
AI 개발자요. 우리 삶 속에 꼭 필
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
습니다.”



전남도의 미래리더 분야 새천년 으뜸인
재로 선정된 최진호(16·한국디지털미
디어고 1년) 군은 방학 중에도 바쁘다.

개발자로 관심 있는 분야가 많은데 부
족한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
서다. 순천 매산중을 거쳐 한국디지털

미디어고에 들어간 뒤 더 바빠졌다고
한다.

디지털미디어고는 ‘IT 특성화고’로 수
업시간 절반 가량을 IT 전문 과목으로
배우는 학교다. 단순 강의식 수업보다
팀별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수업(PBL),
발표, 실습 수업이 많기로 유명한 학교
다.

“들어와보니 부족한 게 많다는 것을 느
꼈죠.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요. 2학년 때는 선배들처럼 팀을 꾸려
앱 개발 프로젝트도 해보고 싶고, 정보
올림피아드도 준비해야하고, 수능 공
부도 해야 하고요. 해보고 싶은 게 많아
요.”

으뜸인재 선정은 최군이 하고 싶은 일
을 하는 데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한다.

고교생 때 나갈 정보올림피아드를 준비
하고 앱 개발 프로젝트 활동 등을 통해
미래 IT 개발자라는 꿈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방학 중 이것저것 부족한 것 배우려다
보면 학원 다니느라 바쁘지 않을까 했
더니 그는 생각이 달랐다.

“전 혼자서 생각하면서 해결하는 게 더
익숙해서요. 문제가 안 풀릴 때 화를 내
거나 포기하는 대신 풀릴 때까지 몇 시
간이 걸리더라도 혼자서 생각하고 풀어
보는 걸 잘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
러 방면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한데 그
러다보면 사고력도 자연스럽게 길러지
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성취감도 훨씬
큰 것 같아요. 15시간 동안 5개의 코딩
문제를 풀었던 적도 있어요. 학원을 안
다니게 되면 뒤쳐지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자기주도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군은 순천 매산중 1학년 겨울방학 때

부모님 권유로 프로그래밍 언어인 C언
어를 배우면서 정보 분야에 대한 관심
이 커졌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SW 개발
자의 꿈을 갖게 됐다. 당시만 해도 어린
나이에 코딩을 배우는 학생들이 많다고
나 당시 중학생인 최군은 너무 늦었다
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접한 IT
에 대한 호기심은 해당 분야에 재미를
느끼게 했고 더 큰 관심으로 바뀌었다.

“전남에 눈·발이 많은데 필요한 일손은
부족하잖아요. 무거운 것을 들기 힘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하시는데 쉽게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일상에 꼭 필
요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싶어요.

관심이 많으니 열정도 생기는 법. 최군
은 배운 지 2년 만에 정부가 주관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대회인 한국정보올
림피아드(제 39회)에 나가 중등부 1차
대회(지역부문) 은상, 2차대회(전국)
동상을 받았다.

최군의 IT 분야에 대한 관심은 관련 분
야 특성화고인 디지털미디어고로 자연
스럽게 진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
다.

장래 꿈이 개발자로 갈 길이 명확해진
듯 한데, 최군은 고민이 더 생겼다고 한
다.

“나만의 꿈을 구체화하려고 하니, 생각
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SW 개발자, 코
더(Coder·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를
하면서도 수학 등 전공지식을 갖춘 깊
이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기계공
학으로도 관련 공부를 확장시켜 전문성
을 가진 개발자가 되고 싶고요. 졸업할
때까지 여러 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아
가면서 또렷하게 꿈을 만들어 갈 겁니
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3 으뜸인재 (9)
동신대 한의학과 2년
노가은씨

전남에 본점을 거점 한방병원 설립하겠다

“해양치유 관광지 활성화 연계
한방 의료 관광 메카로”
연구원-멘토 참여 의료봉사활동 등
선한 영향력 전달
2023년 07월 30일(일)

“전남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병원이 멀리 있으니 자주 가지 못하잖아요. 전남에 본점을 둔 거점 한방 병원을 설립하고 싶어요. 유능한 한의사들을 전남으로 모을 수 있겠지요. 류머티즘 관절염 등 치료기 쉽지 않은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지역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전남도의 자연과학(한의예) 분야 미래 리더로 인정받아 새천년 으뜸인재로 선정된 노가은(22·동신대 한의학과 본과 2년)씨는 무척 바쁘다. 학과 공부는 기본. 예과 때인 2021년부터 임상 연구에 참여했고 지난해에는 동신대 선도연구센터 학부생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폭넓게 전공 과정에 대한 연구 논문 저자로도 참여했다.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이다. 현재 동신대 한의학과 학생회장으로 전국 한의과대학생회 연합 상임위원(39기)도 맡아 학과·학교 행사 뿐 아니라 전국 대학 행사까지 챙기며 활동하는 열혈 한의대생이다.

후배들 챙기는 데도 적극적이다. 나주에서 태어나 광주 문흥중학교를 거친 노씨는 창평고를 졸업하고 동신대 한의학과에 입학한 후 시간을 쪼개 전남도 교육청이 매년 진행하는 ‘R&E 창의융합 발표토론 프로그램’에 2년 넘게 멘토로 참여하며 후배들과 함께 했다.

창의융합 발표토론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와 관련된 관심 주제를 조별로 선정하고 교수 및 멘토의 지도를 받아 주제 탐색활동과 연구활동을 수행한 뒤 보고서로 작성한 후 발표 및 토론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10주 간 진행되는 수업이다.

“학과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망설이긴 했죠. 처음엔 동기들 권유로 시작했어요.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맡아 2년 간 참여했는데 매주 1회 이상 온라인으로 토론하면서 후배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긍정적인 칭찬으로 서로를 응원하면서 제가 더 치유받는 느낌을 받았습시다. 참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선한 영향력을 키워야겠다는 노씨 생각

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강해졌다. 학생회장 때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의료봉사 활동이 줄어들었던 점을 감안, 의료봉사를 기획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곳을 찾아 도움을 손길을 보냈다.

“완도와 나주지역으로 의료 봉사 활동을 다녔는데, 완도지역에 배를 타고 들어가 보니 마을 주민들 심정을 조금 이해하겠더라고요. 시골에 홀로 남아있는 노년층들이 많잖아요. 특히 아픈 어르신들은 혼자 멀리 움직이기 수월치 않아 아파도 대충 참는 경우가 많아요. 가까운 데 의사, 병원 등 조력자가 있어야 관리를 잘 할 수 있을텐데 말이죠. 침, 뜸, 한약 등을 활용해 의료봉사하면서 의료 접근성, ‘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걸 느꼈습니다.”

전남의 노인인구는 지난 6월 말 기준 46만 3668명으로, 전체 인구의 25.6%에 이른다.

노 씨는 지역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전남도의 글로벌 비전 캠프에 참여해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다. 다양한 자원을 활용, 전남을 한방 의료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꿈도 키우고 있다.

“제가 가진 것으로 남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이어가고 싶어요. TED 강의로 한국의 우수한 한방 의료를 알리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3 으뜸인재 <10>
순천여고 1학년 조한이 양

2025년 열리는 광주세계양궁대회서 메달 따고 싶어요

초 4때 시작...2022년 소년체전서
2개 종목 금메달
더 먼 거리 쏠수록 짜릿함 느껴...
국가대표 선발 목표
2023년 08월 03일(목)

“꿈요?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태극마크 달고 2025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메달 따고 싶어요. 또 오랫동안 국가대표가 돼서 도쿄올림픽 2관왕 김제덕 선수처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게 앞으로의 꿈입니다.”



고교생 궁사(弓士) 조한이(16·순천여고 1년)양은 방학이지만 학교를 매일 오가며 하루 4시간 넘게 훈련을 한다. “사대(射臺)에서 타깃과 나, 둘만 남게

집중한 다음 활시위를 당기는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코어 강화 운동도 하고, 그러면 훈련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가 바람이 불 때 중심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합이 없는 평소에는 자제 다듬는 연습도 많이 해요. 좀 지루하겠지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좋아하는 거니까 정말 잘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되는 게 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조 양은 순천 성남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활을 잡았다. 과녁에 꽂히는 화살로 실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깔끔함이 좋았다고 했다.

“매일 빈 활을 당기는 연습을 하는데, 지루한 것보다 언젠가 ‘진짜 화살’을 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그래서 훈련을 더 즐겁게 한 것 같아요.”

제 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2018년) 때 처음으로 다른 선수들과 함께 사대에 올랐고 이 때 양궁을 해야겠다는 목표가 명확해졌다고 한다. 부모님도 경험을 다양하게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하며 조 양의 선택을 지지하고 격려했다.

“20m부터 시작해 25m, 30m, 35m... 더 먼 거리에서 활을 쏠수록 목표가 새롭게 생기더라구요. 10점 쏠 때 느끼는 짜릿함도 계속 활을 쏘고 싶은 재미를 주었고요.”

이듬해 열린 제 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2019년)에서는 여자 13세 이하 부문 개인종합, 단체종합, 20m 등 3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순천 풍덕중에 진학한 뒤 새롭게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기 시작했다.

“모든 화살이 과녁 중앙에 꽂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더 연습하죠. 지도자 선생님도 실망하지 말고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조언해주셨어요. 긍정적인 성격도 양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도 지나면 잘 잊어먹어 버리거든요.”

좋은 결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열린

제 56회 전국남녀양궁종별선수권대회에서는 한국타이기록으로 여자중학부 40m 부문 1위에 올랐고 제 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2022년)에는 여자 16세 이하 부문 30m, 40m에 출전, 2관왕을 차지했다. 대한민국 여성체육 꿈나무상(2022년)도 받았다. 이 때 처음으로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경험도 얻었다.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은 ‘지옥의 레이스’로 불린다. 우선, 1차전에 나설 남녀 선수들 각 100명을 선발하는데 여기에 포함되기 쉽지 않다. 이후로도 2차전을 치르고 최종 6인(남녀 각 3명)만 가려내기까지 다시 토너먼트, 리그전 등을 거쳐야 한다.

조 양은 올해 전국체전과 두 번째 국가대표 선발전을 목표로 세워 연습하고 있다.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제 104회 전국체전에 전남 대표로 나서 메달을 따는 것이 첫번째 목표, 이후 11월에 예정된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서 1차전을 통과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두번째 목표다.

“어린 나이에 올림픽이라는 큰 시합에 나가서 떨지 않고 ‘화이팅’ 넘치게 경기하는 김제덕 선수가 롤모델이에요.”

조 양은 중학교 때 전남도의 으뜸인재로 선정된 뒤 고교 때 재선발된 케이스다. 자신의 꿈을 향해 걸어가는 데 으뜸인재 선정이 큰 도움이 됐다는 게 조 양 설명이다.

“ 으뜸인재로 선정된 뒤 물적 지원과 자신감이 커지면서 다양한 대회에 입상하고 소년체전 2관왕에 오르고 국가대표 선발전도 경험해보는 등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선발됐으니 또 좋은 일이 생기게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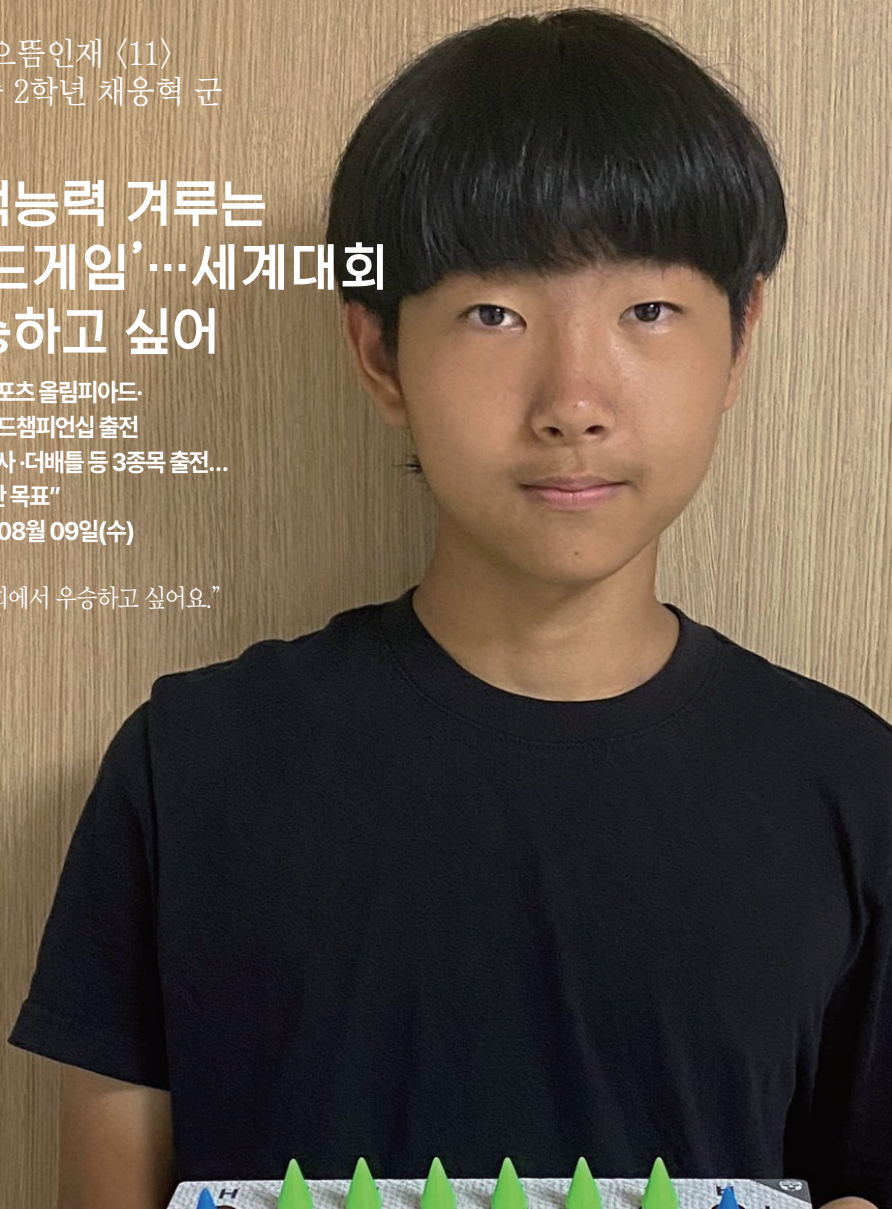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3 으뜸인재 <11>
장흥중 2학년 채웅혁 군

지적능력 겨루는 '보드게임'...세계대회 우승하고 싶어

마인드스포츠 올림피아드·
2023 월드챔피언십 출전
트라이헥사·더배틀 등 3종목 출전...
"국제심판 목표"
2023년 08월 09일(수)

"세계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어요."



채웅혁(14·장흥중 2년)군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마인드스포츠 올림피아드(Mind Sports Olympiad)·2023 월드챔피언십'

을 앞두고 들뜬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영국에서 열리는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종목이 두뇌 게임인 올림픽)는 지난 1997년 영국에서 시작된 행사로 올

해로 27회째다. 신체를 이용한 올림픽과는 달리 두뇌를 이용해 체스, 퍼즐, 바둑 등 80여개 이상의 다양한 보드 게임으로 지적 능력을 겨루는 대회이다. 코로나 이전인 2020년 대회 때는 100여 개국의 6000여명이 참가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제 경기에 나가게 됐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열심히 준비해 1등 하면 제가 사는 장흥이 유명해지겠죠. 생각만 해도 벅차네요. 영국도 처음이라 설레요."

채 군은 지난 4월 대한마인드스포츠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3 마인드스포츠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전' 중고등부 부문에서 동상(3등)을 받아 세계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다.

채 군이 마인드스포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다.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보드 게임에 관심을 보였던 채 군에게 부모님이 권유했다고 한다. 마인드스포츠 종목을 소개하는 학원도 집 근처에 있어 어릴 때부터 다양한 종목을 접하게 됐고 수시로 게임을 할 정도로 매력에 빠져들었다.

"전략을 짜기 위해 더 머리를 쓰고 집중해서 이기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상대 게임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를 뒤서 이겼을 때의 희열도 크지요. 다른 어떤 놀이보다 재미있어요."

관심이 많아지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열린 '2019 마인드 스포츠 코리아'에 첫 출전, 우수상(4등)을 받더니 중학생 때는 세계대회 출전 자격을 얻을 정도로 실력도 금세 늘었다.

"초등학생으로 참가했을 때는 저보다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서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중학생이 되어서는 열심히 준비해 겨뤄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고 국가를 대표해서 세계 대회에까지 나가게 돼 뿌듯합니다. 나이 제한이 없는 대회라 어른들하고도 겨뤄보고 싶어요."

취미도, 특기도, 스트레스 해소법도 모두 '머리 쓰기'인 채 군이지만 여느 또래 친구들과처럼 밖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중학생이다.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실력을 키우는 데 중요하긴 하지만 오래 앉아서 들여다본다고 해서 계속 새로운 전략이 떠오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게임은 한 번 하는 데 5분, 한 번 게임하는 데 20분 정도 걸리는 종목도 있어요. 한 번 연습할 때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채 군은 올림피아드의 여러 종목 중 삼각형들이 모여 만들어진 퍼즐을 이용해 정육각형을 만드는 트라이헥사, 바둑·오목 게임을 연계한 더배틀, 같은 색깔의 말들을 보드판에 있는 선에 모두 이어지게 하는 게임인 라인오브액션 등에 출전할 계획이다.

채 군은 대회가 열리는 영국까지 갈 경비가 만만치 않았는데 전남도의 으뜸인재 선정으로 경비 지원을 받게 돼 부담 없이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제가 게임을 하면서 보니 게임을 이끌어가는 심판 책임도 막중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게임을 마음껏 지켜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마인드스포츠 올림피아드 대회 국제심판 자격으로 대회장에 서는 꿈도 키워보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3 으뜸인재 <12>
뉴젠리더십학교 1학년 운동규군

사람들에게 용기와 울림 주는 글 쓰고 싶어요

책 더 읽으려 대안교육기관 전학 '독서왕'...
감상문 책 출간
고교 검정고시 합격... 내년 대입 준비
"독서는 계속해야죠"
2023년 08월 17일(목)

"책 속에 펼쳐지는 다양한 인생과 시대,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운동규(17)군은 자신이 다니는 대안교육기관(뉴젠리더십학교)에서 자타공인 '독서왕'이다. 종이책보다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등을 찾는 게 익숙하고 공

부하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또래 고교생들과 달리, 매일 책을 읽고 글쓰기에 관심을 갖는 '별난(?)' 학생이다. 책 읽는 게 좋아서 '집중 독서법' 훈련

을 받고 더 많은 책을 읽을 시간을 갖고 싶어서 중학교 3학년 때 대안교육기관으로 옮길 정도다. 읽고 쓰는 데 관심이 많다보니 여수시가 주관한 '29회 독서왕 선발대회'(2021년)에서 입상하거나(새한국문인협회여수지부 주최로 열린 '제 71회 학생백일장'(2021년) 대회에도 참가해 상을 받기도 했다. 또 책을 읽은 뒤 기록한 감상문으로 엮은 '청소년이 읽고 청소년이 쓰다'라는 책까지 펴냈다.

"처음부터 책을 낼 생각은 없었어요. 또래 학생들보다 책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많은 저를 다르게 보셨는지, 대안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읽은 책에 대한 느낌을 기록해보라고 권하셨어요. 그렇게 저장해놓았던 게 꽤 많더라고요. 그것들 중에 추려 책에 담았어요."

전남도가 윤군을 미래리더(인문사회·문학) 분야 새천년 으뜸인재로 선정할 것도 이러한 분야에 대한 관심, 열정,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윤군은 여수 송현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 추천으로 다니게 된 학원에 빼곡히 꽂힌 책을 하나둘 꺼내읽기 시작하면서 독서에 재미를 붙였다.

"단순한 학교 공부 외에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을 책을 통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살지 않았던 옛 시대를 이해하거나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더라고요. 다른 것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컸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했고 부모님도 응원해주셨어요.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제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윤군은 대안교육기관으로 옮긴 뒤 다양한 책을 읽으며 기록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고 한다. 옛 고전문학, 시, 소

설, 철학책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편식'하지 않고 찾아 읽으며 문학적 관심을 키웠다. 대안학교에 비치된 도서 수백권을 모두 읽었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10번 넘게 읽는 등 책 속 주인공이나 작가의 매력에 빠져 여러 차례 읽은 책도 적지 않다. 학교가 마련한 '작가와의 특강'을 챙겨듣고 읽은 책을 중심으로 또래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는 재미도 쏠쏠했다고 한다.

윤군이 이렇게 책을 읽은 뒤 느낌을 써놓은 글이 100개가 넘는다.

"읽은 책을 모두 쓴 건 아닌데, 느낌을 쓰다보니 생각의 폭이 넓어져 미처 보이지 않았던 것까지 떠오르고 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썼던 글을 다시 보니 그때와는 다른 느낌이라 더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글을 쓸 때 어떻게 표현할 지 고민도 깊어지고 그런 기록을 일부 모아서 첫 책을 냈고 더 다듬고 정리해서 다른 책으로 엮어보고 싶습니다."

윤군은 대안학교를 다니며 중·고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쳤다. 내년부터는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또래 고교 2학년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책 읽기나 글쓰기를 소홀히 할 생각은 아니다.

"작가, 번역가, 문학평론가 등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아직 꿈은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학이나 글쓰기 관련된 학과에 진학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울림을 줄 수 있는 글을 쓰기 위해 앞으로도 독서와 글쓰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3 으뜸인재 (13)
해남중 3학년 이담

최경주 프로처럼 PGA 우승하고 싶어요

초3때 골프 입문... 전국 청소년대회 우승 등
실력 일취월장
광주·서울 등 오가며 맹연습
“나를 실천하는 골퍼 되고 싶어”
2023년 08월 23일(수)

“최경주 프로처럼 전남을 대표하는 멋진 선수가
돼 PGA(미국남자프로골프투어)에서 우승하고 싶
습니다. 우선은 국가대표가 되는 게 1차 목표입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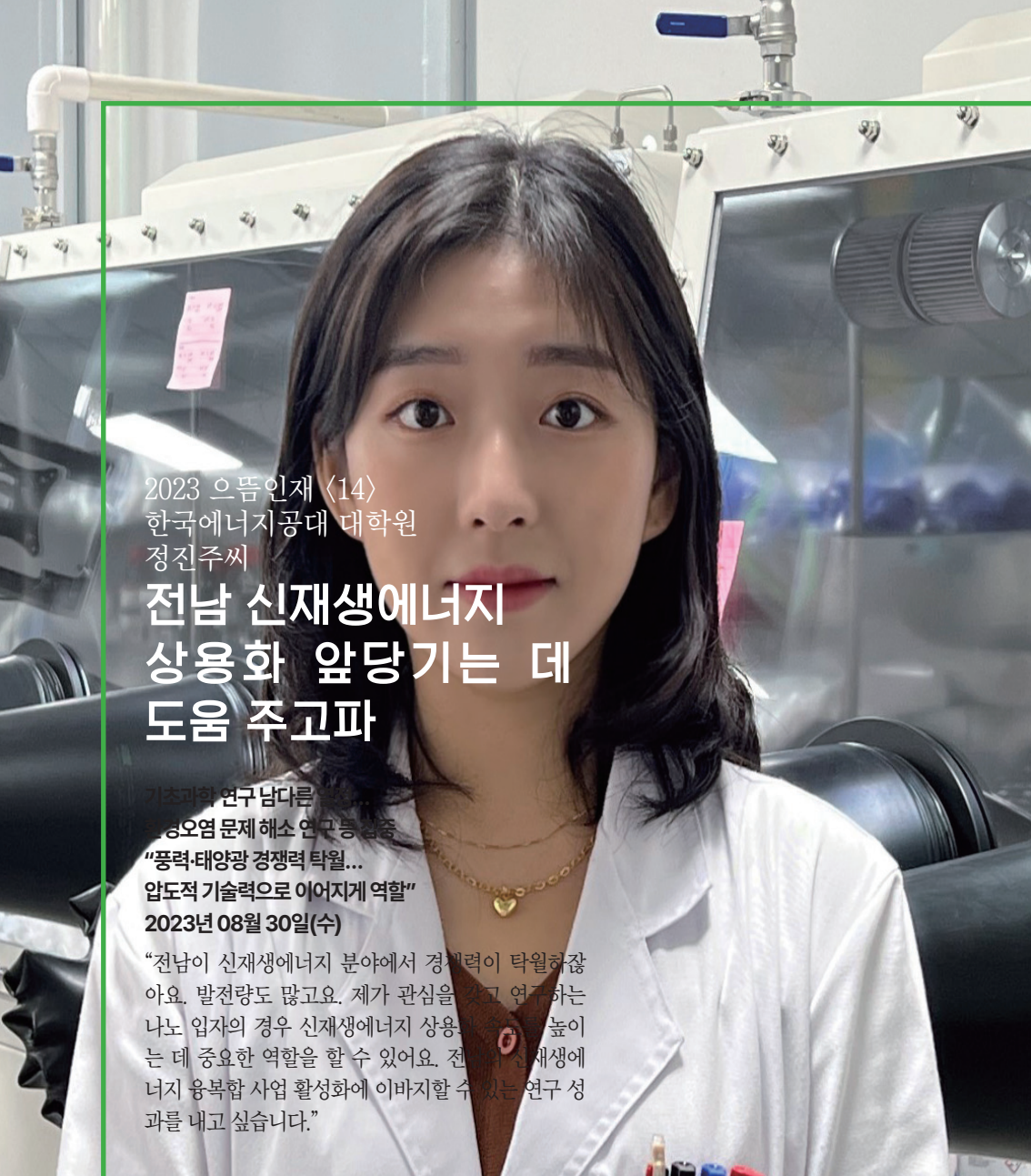
이담(15·해남중 3년)군은 희망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이제 중학생인데도 매 학년마다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릴 정도로 실력을 갖춰 전남도의 예체능 리더(골프) 분야 새천년 으뜸인재로 선정된 골프 기대주다.

이 군은 여섯 살때 우연히 어머니를 따라 골프연습장에 놀라갔다 놀이 삼아 쳐본 골프에 재미를 붙여 해남동초등학교 3학년 때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이군 어머니는 “운동 신경이 좋은 듯한 아들에게 골프를 비롯, 수영, 배드

민턴 등 관심있는 스포츠를 시켜봤는데, 유독 골프에 흥미를 보이며 골프채를 손에서 내려놓질 않았다”고 했다. 이 군은 골프에 입문한 지 1년도 안된 초등학교 4학년 때인 지난 2018년 첫 출전한 ‘덕신하우징배 주니어챔피언십’ 골프대회에 출전, 첫날 깜짝 3위에 오르며 데뷔 무대를 치렀다. 10위로 마무리했지만 ‘기분좋은 자극’을 받았다고 한다. “처음 배울 때는 해남에 골프 레슨을 받을 지도자 코치님을 찾지 못해 1년 가까이 부모님 차를 타고 완도를 오가며 연습했어요. 그렇게 출전한 대회였는데, 첫 출전해서 상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초등부는 10위까지 시상할 거거든요.” 이 군 실력은 이후 ‘일취월장’했다. 초등학생인데도, 2019년 열린 제 25회 전남도협회장배 학생골프대회 남자초등부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제 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3세 이하 남자 단체전에 출전, 10위에 올랐다. “국가대표가 1차 목표인데, 수십 차례의 대회에 나가 고교·대학생 형들과 경쟁해 6명 안에 들어야 해요. 대회를 준비할 때는 새벽 3시부터 나가 연습합니다. 열심히 운동해 좋은 성적을 내면 성취감이 들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어요.” 해남중에 입학하고는 연습 시간도 부족 늘었고 의지도 강해졌다. 해남에는 지도자급 프로 골퍼가 없어 중학교 1~2학년때는 주말마다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연습했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거의 하루종일 골프채를 잡았다. 레슨을 받지 않는 평일에는 오후 4시30분 수업이 끝나자마자 연습장으로 달려가 혼자 3시간 동안 스윙 동작을 찍어

보며 골프채를 휘두른다. 퍼팅을 잘하고 싶다면 책을 읽고 동영상도 검색하는가 하면, 최경주 프로, 임성재 프로, 김주형 프로 등 좋아하는 선수들의 훈련 방법 등을 찾아 읽는 등 애정을 쏟았다. 연습은 성과로 이어져 지난해와 올해 전진바이오팜배, 17회 회장배 발롱블랑 전국청소년골프대회, 전남골프협회장배, 제6회 옥타미녹스배 KAYA 전국청소년골프대회 등에서 우승했다. 중학교 3년 간 체격도 몰라보게 자랐다. 체격이나 스윙하는 모습은 김주형 프로를 닮았다고 한다. 이 군이 골프 선수라는 걸 아는 선생님들도 체격적으로도 움이 되는 운동을 알려주거나 함께 러닝을 하며 재능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탰다. “레슨비, 장비 구입비는 물론, 1년에 20~25개 대회에 참여하려면 숙식, 대회 참가비용을 비롯해 연습 라운딩 비용 등 감당해야할 경비가 적지 않더라고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연습 라운딩 없이 대회에 나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으뜸인재에 선정되니 부담 없이 연습할 수 있게 됐어요.” 좋은 성적을 내면서 여러 골프 업체로부터 장비 지원도 받게 됐다. “최경주 프로의 실력과 도전 정신을 닮고 싶어요. 열심히 연습해 세계 무대에 도전했고 결국 세계 정상에 자리에서 올랐잖아요. 골프 꿈나무들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도 좋아합니다. 저를 항상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선수, 꾸준히 잘 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3 으뜸인재 <14>
한국에너지공대 대학원
정진주씨

전남 신재생에너지 상용화 앞당기는 데 도움 주고파

기초과학 연구남다른
환경오염 문제 해소 연구능력 증
"풍력·태양광 경쟁력 탁월...
압도적 기술력으로 이어지게 역할"
2023년 08월 30일(수)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경쟁력이 탁월하잖아요. 발전량도 많고요. 제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나노 입자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상용화 속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정진주 한국에너지공대 대학원(에너지공학부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실험실에서 산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연구에 열정을 쏟는다. 성실함과 꾸준함이 당장 결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연구자'를 오래 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는 게 정씨 생각이다. 정 씨가 올해 전남도 연구인재 분야 으뜸인재로 선정된 데도 이 같은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열정이 한 몫을 했다. 그는 금세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행착오가 훨씬 많지만 어렸을 때부터

과학이 좋았다고 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연구하는 교수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전대사대 부고) 때 연구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전남대와 연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대학생 언니들과 함께 연구 활동도 했어요. 그 때 연구가 질소 도핑으로 플렉시블한 투명 전극을 제조하는 실험이었어요. 언니들 따라 열심히 했는데 연구하면서 화학, 물리 등에 흥미를 갖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정 씨가 조선대 생명화학고분자공학과를 택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실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학생 때 다양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학부 연구원 경험 기회를 찾아냈다. 당시 실험실 일과 시간이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였는데, 망설이지 않고 즉각 지원했다고 한다. 하루를 꼬박 투자해야 하는 실험실 일정을 3년 동안 견뎌내며 배우고 투자한 결과는 성과로 이어졌다.

"연구를 통해 결과물을 얻어내면서 느껴지는 성취감이 좋았어요. 실험실을 들락거리며 화학·물리 등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지구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관심이 커지더라고요." 흥미가 생기니 대학 1학년 겨울방학 이후부터 3년 간 9번의 포스터 발표, 3차례의 구두 발표를 성공적으로 해냈다. 다양한 연구 분야를 접한 것도 경험으로 남았다.

대학 때는 나노셀룰로스를 목재에서 추출하는 공정에서 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다 목재에서 해조류로 변경했을 때 공정 단축과 함께 친환경적인 추출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파악하게 된 연구를 계기로 나노셀룰로스에 대한 선택적 추출을 통해 고분자 나노복합체로 응용하는 연구, 여기에서 다공성 전극

물질로 활용하는 연구까지 진행했다. 리튬이온전지를 활용한 연구로 에너지 저장물질을 경험하는가 하면, '축전기' 또는 '콘덴서'라고도 부르는 에너지 부품인 커패시터와 유사한 고성능 유사 커패시터 제작 연구에도 참여했다. 페플라스틱을 활용한 탄소 저장형 구조체 제조 공정 개발, 이산화탄소를 포집에 응용하는 연구, 해조류에서 추출한 물질을 친환경 배터리 소재로 활용해 배터리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연구 등도 정씨의 연구 경력 리스트에 올라있다. "대학원 과정 중 태양전기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술력을 올리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씨가 한국에너지공대 대학원 과정을 밟으며 세운 목표다. 기후 위기가 전 지구적 상황인 만큼 신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현실에서 어떻게 더 빨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정씨 생각이다.

"전남은 여건이 굉장히 좋잖아요. 전남도가 내놓는 통계 자료만 봐도 그래요. 풍력에너지 기술적 잠재량(167.5GW)이 전국에서 가장 높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6971GWh)도 전국에서 3번째로 많더라고요. 태양광발전 설비용량(4647MW·전국 1위), 풍력발전 설비용량(425MW·전국 3위) 등 재생에너지 활용 경쟁력은 충분해요. 에너지 융합(Energy Mix)도 가능하고. 이러한 경쟁력이 재생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3 으뜸인재 <15>
영암 삼호중 3년 김재석군

오케스트라에서 역할하는 음악가 되고 싶다

30kg 악기 들고 무안 오가며 연습...
'예술영재 키움사업' 선정
한예중 진학 위해 매진 "편안한 클래식
지역민에게 들려주고파"
2023년 09월 07일(목)

"우선은 군악대에서 활약하는 튜바 주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차근차근 실력을 키워가면서 오케스트라의 꼭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지역민들이 모여있는 여러 무대를 찾아 풍성한 음악으로 기쁘게 헤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석(15·영암 삼호중 3년·사진) 군은 튜바 연주자가 꿈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접한 튜바의 낮고 풍성한 소리에 매력을 느껴 배우기 시작했는데 전공으로 삼아 고교 진학을 계획할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다.
"튜바라는 악기, 생소한 분들 많으실 겁

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 하필 튜바를 골랐느냐고요? 소리를 들었는데 제 안에 딱 들어왔어요. 금관악기 중 가장 크기도 하고요. 저도 덩치가 크고.(웃음)" 튜바는 금관악기 중 가장 크다. 트럼펫이나 트롬본과 달리 세로로 들고 연주한다. 금관악기 중 가장 음역이 낮아 오

케스트라에서는 낮은 음을 담당한다. 무게는 종류마다 다르지만 8~11kg으로, 케이스까지 포함하면 30kg 정도다. 김 군이 악기에 흥미를 느낀 건 초등학교 1학년 때 지역아동센터를 찾았다가 오카리나를 처음 만져보면서다. 오카리나를 익히다 3학년부터 플루트를 붙었는데, 당시 '영암 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플루트 레슨을 해주시던 선생님 권유로 4학년 때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게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하는 계기가 됐다.

튜바는 김 군이 오케스트라에 들어가 연주 활동을 시작하면서 선택한 악기다.

"제 키가 지금 180cm인데, 4년 전인 초등학교 5학년 튜바를 처음 만졌을 때도 또래 친구들보다 덩치가 컸어요. 그래서인지 다른 작은 악기들을 연주할 때는 호흡이 남아 숨이 찰 때가 많았어요. 관악기가 숨을 불어 넣어 입술의 진동으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튜바는 호흡하기 편하더라고요. 소리도 깊고 풍부하고."

다루기 편하고 소리도 좋으니 연습하는 게 즐거웠다. 음악을 들으면 기분도 풀리는 것 같아 혼자서 연습하더라도 심심하지 않다고 한다. 평일에는 매일 오후 학교가 끝난 뒤부터 연습실인 삼호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가 오후 8~9시까지 연습에 열중했다.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힘든 길이지만 네가 하고 싶다면 한 번 열심히 해봐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올해 전남도가 진행중인 '예술영재 키움사업'에 선정되면서 실력도 부쩍 늘었다.

"영암에 튜바 전문 선생님을 찾기 쉽지 않아 혼자서 연습할 때가 많았어요. 연

주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술영재 키움사업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한 차례씩 일대일 레슨 수업을 받다 보니 호흡하는 방식도 바뀌었고 입술에 힘 빼는 법도 알게 됐어요. 이전에는 고음을 낼 때 입술에 힘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소리도 훨씬 좋아졌죠."

토요일이면 연습 강도가 세진다. 영암 삼호에서 30kg짜리 튜바를 짊어지고 버스로 목포터미널까지 간 뒤 다시 전남 예술고 가는 셔틀버스로 옮겨 타고 오전 10시부터 3시간 가량 레슨을 받고 돌아와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3시간 가량 연습한다. 그래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는 게 김 군 설명이다.

"힘들지 않냐고요?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새로운 곡을 연습할 때면 즐겁고 행복해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나날이 실력이 느는 걸 깨닫고 뿌듯함도 느낍니다. 매년 준비하는 정기연주회를 위해 30~40명 가량 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연습하면서 호흡을 맞추는 것도 좋아요."

김 군은 튜바를 전공으로 전남예술고 진학을 준비중이다. 이후엔 전남대 예술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목표로 연수에 열중하겠다는 각오다. 군악대는 대학교 이후 연주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 오케스트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는 것이 김 군 생각이다.

"튜바 소리가 들리는 클래식 음악, 얼마나 듣기 편안하고 풍성한데요. 많은 지역민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배운 걸 남에게 전해주면서 기부할 수 있다는 것, 좋은 것 같아요."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3 으뜸인재 <16>
순천 용당초 5학년 최훈서군

AI·신재생에너지 개발하는 과학자 되고 싶어요

전남인재평생교육원 '과학영재키움'
2년 연속 참여
"사람들이 친환경 과학 쉽게 이용하는데
역할 할 것"
2023년 09월 12일(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기후 위기에 신재생에너지를 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에도 관심이 많아요."

최훈서(11·순천 용당초 5년)군은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과학책을 읽다가도 어려운 문장이나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오면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내려는 욕심이 대단하다고 한다.

"다른 책보다 과학책을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만 가면 무조건 과학책을 집었어요. 컴퓨터 코딩, AI, 신재생에너지 등 어렵긴 한데 신기한 게 더 많아 재미있어요. 주변에서 쉽게 접했지만 잘 몰랐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너무 신기해요. 책을 통해 관심 분야에 종사하는 어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됐어요."

최 군이 자신의 책꽂이에 유독 많은 과학책을 꽂아놓은 것도 이같은 관심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읽어 반질반질 손때가 묻은 과학 책이 빼곡하다. '선생님도 깜짝 놀란 과학 뒤집기'라는 책은 잠 자기 전 꼭 읽는 것을 넘어 옆 구리에 끼고 다닐 정도다.

'...과학 뒤집기' 책은 중·고생 과학 매니아들을 위해 만든 방대한 분량의 과학 교양서 시리즈로, 핵심 과학 주제들을 다루면서도 인간의 삶과 생활 역사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볼 수 있는 책이다.

"...뒤집기-에너지편'을 읽었는데 신재생에너지 종류가 많은 줄 그 때 알았습니다. 아껴써야 하고 친환경적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도 알았어요." 과학에 흥미가 많다보니, 책 뿐 아니라 과학 관련 프로그램 참여에도 열정적이다.

당장, 올해 전남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원이 진행하는 '2023 과학영재키움' 프로그램에 참여해 매주 토요일마다 순천대를 찾는다. 쉬는 날, 4시간 가량 블루이코노미 관련 바이오·에너지·인공지능·메타버스 관련 교육을 받는데도 탄성을 부리지 않는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인데, 학교 밖에서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을 접할 수

는 재미가 있어 올해도 참가 신청을 내 30명만 뽑는 치열한 경쟁을 뚫었다. 순천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과학 프로그램도 2년째 결석 한 차례 없이 참석해오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고 오랫동안 실험·관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코딩, AI 활용한 머신러닝, 번역기능, 에너지 탐구 등 최신 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접할 수 있었어요.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어떤 과학 프로그램에 관심이 클까.

"나만의 챗봇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만의 가상공간을 세우고 거기에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지난해 컴퓨터 로봇 코딩을 배웠는데, 햄스터 로봇이 컴퓨터와 연결되면서 명령하는대로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계속 배우고 싶었고요."

전기차, 태양광, 태양전지 등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 집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더라고요. 그걸로 전기를 이용하니 전기요금도 훨씬 적게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 주변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거리는 크게 멀지 않거든요. 전기차도 많이 타는데 충전시설은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과학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과학자들의 역할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사는 세상이, 지구가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3 으뜸인재 <16>
여수여고 2학년 박예은

올림픽 나가서 사격 금메달 따고 싶어요

중1때 시작...2년만에 소년체전 공기소총 10m
금메달 두각
“으뜸인재 선정 큰 도움...인성·체력·기술 등 키워
보답할 것”

2023년 09월 19일(화)

“사격선수로 하고 싶은 게 무척 많아요. 가장 가까운 꿈은 10월 열리는 전국체전에 전남대표로 출전,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다음엔 11월 일본 동아시아선수권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올림픽 금메달을 꼭 따고 싶어요. 태극마크 달고 올림픽 무대에 서는 그날까지 노력할게요!”

박예은(17·여수여고 2년)양은 여수여중 1학년 때 처음 사격을 시작한 뒤 훈련을 거른 적이 하루도 없다. 사격을 접

하면서 매력을 느꼈고 꿈이 생기니 의욕도, 열정도 더 커졌다고 했다.

“총 쏘는 느낌이 좋았어요. 힘들긴 했죠, 처음에는. 총을 겨누면 손이 덜덜 떨렸거든요. 사격하다보면 0.1점 올리기가 정말 힘든데 점수가 오를 때면 뿌듯했어요. ‘이 맛에 사격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집중하고 조준하면서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더 높은 곳에 빨리 가고 싶은 승부욕도 생기더라고요.”

사격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박양 실력이 빠르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 사격을 시작한 지 2년 만인 지난 2021년 10월 제 37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여중부 공기소총 10m 개인전)을 목에 걸었고 동료들과 팀을 이뤄 단체전 동메달도 땀다.

올해도 지난 4월 제 5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 여고부 공기총 10m에 출전, 금빛 총성을 울렸다. 지난 7월 국제사격연맹(ISSF) 주최로 열렸던 ‘2023 ISSF 세계주니어 사격선수권대회’에는 주니어 국가대표(공기소총 10m)로 선발, 세계적 선수들과 겨뤘다. 8월 전북 임실에서 열린 제 5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격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땀다. 올해 11월에는 일본 동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코로나 시기에는 시합이 많이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훈련도 제대로 하기 쉽지 않아 힘들었죠. 그래서 나가는 시합마다 더 집중해야 했어요. 1~2점으로 승부가 갈리는 종목이니 그야말로 정신력 싸움이지요. 특히 올해는 국제대회 출전 자격을 부여하는 대회가 있어 더 간절했고요.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코치님 조언을 들으며 마음 다잡는 법을 터득하면서 훈련했어요.”

마음 편히 총을 쏘기까지 쉽지는 않았

다. 사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았다. 0.1점 차이로 승부가 갈리다보니 장비에 신경을 써야 했지만 장비 하나 하나가 비싸 부담이 됐다. 공기소총 한 정 가격이 수백만원에 이르고 사격화, 사격 옷, 기능자, 가늠쇠 등도 구입해야 한다. 박양에게 전남도의 ‘새천년 으뜸인재’ 선정은 큰 도움이 됐다.

“완전, 완전 도움이 됐죠.(웃음), 소모품 교체 비용 등 사격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서 큰 지원을 받았거든요. 마음이 편해지니 기록도 좋게 나왔어요. 이런 제도 자체를 몰랐다가 감독님 등이 알려줘 신청했어요. 저랑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줄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올림픽 무대에 서기까지 보완할 게 적지 않다는 게 박 양 생각이다. 그래서 세계적 선수들 훈련 영상과 시합 영상을 꼼꼼히 살펴 보면서 분석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올림픽에 나가려면 일반, 주니어 선수들 모두 합쳐 상위권에 올라야만 가능해 인성·체력·기술·정신력·경기진행능력 등 부족한 부분을 메모해 놓고 집중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자만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겸손해야 다른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롤모델은 김연아 선수요. 종목은 다르는데, ‘마지막 1도가 없으면 물은 끓지 않는다’고 했던 말이 공감이 됐어요. 제가 좋아하게 된 스포츠이니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3 으뜸인재 <18>
여수중앙여고 '위대한 과학'팀

실생활 도움 주는 AI 제품 만들고 싶어요

시각장애인 신호 감지 웨어러블 제품 개발 '청소년 노벨캠프' 대상
"게임·예술·의료 분야 등 활용 가능한 첨단 기술에 더욱 흥미 생겨"
2023년 10월 05일(목)

전남도의 '청소년 노벨캠프'에 참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전달시스템 개발 연구로 대상을 받은 여수중앙여고 '위대한 과학팀'. 왼쪽부터 신철수 지도교사, 이은경, 서혜인, 정시은, 김수정양.

"인공지능을 접목해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편의를 주면서도 이용자가 즐거워한다면 더욱 좋겠어요. 제가 웨어러블 기기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기술 개발에 관심이 많아요."

서혜인(여수중앙여고 3년)양은 전남도가 추진했던 '청소년 노벨캠프'에 참여한 뒤부터 부쩍 하고 싶은 게 많아졌다고 한다.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를 비롯,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VR, AR, XR 기술을 게임 등 여가 생활 뿐 아니라 의료, 예술 분야에 활용하는 과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시간도 늘었다고 한다.

서양은 지난해 전남도의 '청소년 노벨캠프'에 친구들과 참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인공지능 센서로 횡단보도 신호를 감지하는 제품' 등을 개발해 대상을 받았다. 같은 학교 친구인 이은경, 정시은, 김수정 양과 '위대한 과학'이라는 팀을 꾸려 8개월 간의 연구

끝에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소년 노벨캠프'는 전남도가 지역 교에서 노벨상을 꿈꾸는 이공계 연구 동아리의 신청을 받아 자기주도적 연구를 하도록 팀별 연구과제 수행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17~22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위대한 과학팀은 지난해 참가한 17개 팀 중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쭉 이어져야 하는데 끊겼다가 다시 이어진 점자 블록이나 횡단보도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접할 때면 궁금했거든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더 편한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다가 (노벨캠프 참여로) 깊게 연구해볼 기회가 생긴 거죠."

위대한 과학팀은 시각장애인을 위



한 정보전달 시스템으로 ▲모자나 옷에 탈·부착해 쉽게 횡단보도 녹색 신호를 감지하는 인공지능센서 ▲잃어버린 물건 위치를 알려주는 모바일 앱 등을 개발했다.

"처음엔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뭐가 불편한지, 어떤 게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몰라 막연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관련된 분들 계정을 찾아 무작정 메시지를 보냈는데, 운 좋게 답변을 주셨어요. 모자나 옷에 부착 가능한 웨어러블 인공지능 카메라 센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렇게 한 겁니다. 처음엔 인공지능 센서를 지팡이에 부착하려고 했었는데, 지팡이가 무거워지고 바닥에 두드러다가 파손될 위험도 있더라구요. 정보 전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친구들과의 개발 과정에서는 '색깔을 인식해서 알림을 주는 방법이 더 실용

적일까. 센서 기능을 옷에 부착하려면 배터리는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할까' 등 또 다른 아이디어가 쏟아져 재미있게 연구를 진행했다고 한다. 앱 개발 등에 필요한 코딩은 신철수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았다. 또 여러 논문, 책을 찾아보며 코딩을 익히고 카메라를 활용해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보행에 편의를 주는 방법을 연구했다.

"친구들과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여러 분야 지식을 접할 수 있게 됐고 반복적인 오류와 실험 과정을 끈기있게 이겨내면서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노벨캠프 참여 이후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나 인공지능 통신기술 등 첨단 기술에 더 흥미가 생겼어요.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3 으뜸인재 <19>
목포해양대 권혜지·천미소·조율

손 선풍기처럼 휴대하기 좋은 구명장비 만들겠다

전남도 '무한도전 프로젝트' 참여 '구명튜브 발사기' 개발 중
연말 시제품 제작 "청년 창업에 인재육성 프로젝트 꼭 필요"
2023년 10월 18일(수)

휴대용 인명 구조장비 발사기를 제작중인 국립 목포해양대 권혜지, 천미소, 조율씨(왼쪽부터).

“인명 구조 장비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더 많이 비치돼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전성을 기본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가격도 저렴하고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구명 장비를 구상중입니다.”

국립목포해양대 권혜지(24·항해학부 2년), 천미소(20·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1년), 조율(23·항해정보시스템학부 4년)씨는 요즘 구명 장비 설계 도면을 수정하고 새롭게 개선하느라 고민이 많다. 어떻게 해야 장비 사용 범위를 넓혀 동시에 여러 명의 구조자를 구할 수 있을지, 생존율을 높이는 장비를 설계에 반영하느라 주말에도 학교를 찾아 보고서를 뒤지고 사례를 찾는다. 권씨 등은 학교 창업동아리에서 '라이프샷'이라는 팀을 꾸려 전남도가 대학생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는 '2023 대학생 무한도전 프로젝트'에 참여, 해상 안전장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대 학생이다보니 바다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다보니 해상안전도 신경을 더 쓰게 되더라고요. 쉽게, 더 자주 바다를 찾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튜브를 로켓처럼 날려보낼 수 있는 인명 구조 장비를 생각한 이유다.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 조준하고 버튼만 누르면 튜브가 발사되는 장치로, 고정식 발사기에서 버튼을 눌러 튜브를 던져보내는 기존 장비와 달리 이동이 가능하다는 게 차이점이다. 구조자가 직접 튜브를 던지는 경우 던지는 사람의 힘에 따라 사정거리도 다르고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권씨 등이 제작중인 '구명튜브 발사기'는 발사 거리를 조절할 수 있고 휴대도 가능해 안전요원 뿐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손 선풍기처럼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안전에도 도움



이 되지 않을까요. 고정식 발사대는 설치된 곳이 많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제작중인 발사기는 휴대성을 고려해 길이 70cm 정도로 만들 겁니다. 설계 도면 작업을 끝내고 3D 프린터로 제작중이니 연말이면 발사기 시제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씨 등은 애초 세워둔 월별 추진계획에 따라 도면 작성, 부품 제작 및 테스트, 시제품 제작 순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솔직히 학생들이라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품화하기까지는 힘들어요. 시제품 제작까지 들어가는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도 프린터, 설계도면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만 생각해도 1000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무한도전 프로젝트를 선배한테 들어요. 우리끼리 생각만 하는 수준을 넘어 구상을 현실화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꿈꾸는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권씨 등은 내년까지 구명 장비 설계 도면 제작을 거쳐 제품을 만들 계획이다. 인명 구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싶다는 구상이 실현될 날이 머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라남도·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